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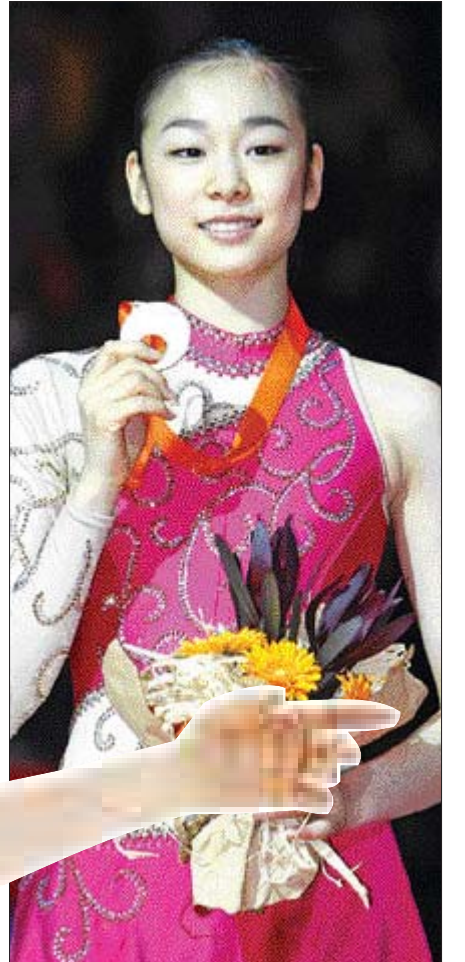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지의 환경적인 고품격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피겨여왕' 김연아 그랑프리 파이널 2연패



16일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1위에 오른 김연아가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신력·뛰어난 기량이 빛어낸 '금'

넘어져도 끝까지... 완벽한 마무리

여성글 최초 200점 못이뤄 아쉬움

'피겨요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김연아는 16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번의 점프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132.21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64.62점)를 합쳐 196.83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김연아는 두 번째 점프인 트리플 루프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여자 싱글 최초로 200점대를 넘을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 2연패에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지난 시즌 시니어 무대 데뷔 첫 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했던 김연아는 2연패를 달성하면서 '피겨 여제'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김연아에게 이번 금메달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점프 기술의 정교함과 정확성을 ISU 심판진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게 무엇보다 소중한 결과다.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는 지난해 12월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역대 여자 싱글 최고점인 199.52점을 받으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올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김연아(동메달)에 앞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우위를 점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ISU의 채점 강화 기준은 '정서 점프'로 단련된 김연아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더불어 김연아의 정신력을 앞세운 위기 관리 능력도 한층 돋보였다.

김연아는 그랑프리 파이널 쇼트프로그램에서 부담스런 마지막 연기자로 나서 첫 번째 점프파제인 트리플-트리플 점프 콤비네이션에서 손을 짚는 실수를 범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무사히 연기를 마쳐 자신의 시즌 베스트 점수를 받아 냈다. 또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연기 초반 트리플 루프에서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완벽한 마무리로 연기를 마치면서 타고난 승무사 기질을 제대로 발휘했다.

의신들도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김연아의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

▲ 16일 열린 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김연아가 화려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그랑프리 파이널은?

시리즈 상위 6명 출전 '왕중왕전'

김연아가 출전한 그랑프리 파이널은 이번 시즌 여섯 차례 열린 ISU 그랑프리 시리즈 여자 싱글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성적 좋은 상위 6명에게만 출전권을 부여, 실력을 겨루는 '왕중왕' 성격의 대회다.

지금까지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2연패에 성공한 선수는 이리나 슬러츠카야(러시아)와 타라 리핀스키(미국)에 이어 김연아가 세 번째다.

올해 그랑프리 시리즈에는 총 43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그중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이 좋은 24명의 선수가 두 번의 대회에 초청을 받았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한 차례만 그랑프리 대회에 나섰다.

지난 시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김연아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깜짝' 역전 우승으로 한국 피겨 역사를 새롭게 썼고, 올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로 그랑프리 시리즈 시드를

받아 3차와 5차 대회에 초청

을 받았다. 김연아는 3차 대회(컴보브치아)에서 쇼트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한 뒤 프리스케이팅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시즌 첫 금메달(총점 180.68점)을 목에 걸었고, 5차 대회(컴보브치아)에서는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모두 1위에 오르며 우승(총점 197.20점)하면서 한 시즌 2회 우승에 성공했다.

두 개 대회 금메달로 그랑프리 포인트 30점을 얻은 김연아는 2차 대회(총점 177.66점) 및 4차 대회(179.80점)에서 우승한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와 동점을 이뤘지만 '그랑프리 포인트'가 같을 경우 각 대회 총점을 더한 성적이 높은 선수를 우선으로 한다는 ISU 규정에 따라 당당히 시즌 1위로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했다.

■ 다음 목표는?

내년 세계선수권 정상 도전

'이번에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다' 김연아의 다음 목표는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이다.

김연아는 토론토 크리켓 빙상장에서 내년 3월 17~23일까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치러지는 2008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올인을 할 예정이다.

다만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 바로 내년 전국 동계체전과 함께 4대륙 선수권대회 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동계체전은 내년 2월 20일부터 나흘간 치러질 예정이며, 이에 앞서 4대륙 대회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내년 2월 11~17일까지 펼쳐진다.

그러나 다행으로 내년 1월 8~12일까지 치러지는 종합선수권대회의 경우 김연아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한국의 출전

권을 2장으로 만든 만큼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

김연아 측은 전국체전과 4대륙 대회 모두 출전하는 게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어느 대회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입장이다.

동계체전의 경우 물리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터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4대륙 대회 역시 국내에서 3년 만에 열리는 데다 역대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메달권에 든 적이 없어 김연아의 활약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어느 대회에 참가해야 할지 브라이언 오서 코치 및 어머니 박미희씨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IB스포츠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인터뷰

"실수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트리플 루프(공중 3회전)에서 실수한 뒤 긴장했지만 머릿속에 앞으로 펼칠 연기만 생각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김연아는 16일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 "트리플 루프에서 실수를 했지만 염두에 두지 않고 나머지 요소에서 실수 없이 연기만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금메달은 물론 대회 2연패를 달성해 너무 기쁘다"고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어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작은 실수들이 있었다. 이번 실수를 보완해서 내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무엇보다 우승 비결로 집중력과 완벽한 준비과정을 손꼽았다.

김연아는 "트리플 루프를 실수하고 나서 긴장이 많이 됐다"며 "하지만 머릿속으로 앞으로 해

야 할 연기를 생각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경기를 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 나서기 앞서 체력을 기르는 데 주력했다. 그랑프리 파이널을 앞두고 체력은 물론 컨디션 조절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에 비해 올시즌 더욱 강해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토론토에서 장기간 훈련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게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의 연기에 대해선 "오늘 아사다가 맨 처음 연기를 했지만 그 때 대기실에서 몸을 풀고 있어서 연기를 보지 못했다"며 "큰 박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연기를 잘 했구나'라는 생각만 했다"고 대답했다.

'신지에 천하' 계속 된다

KLPGA 2008 시즌 개막전 차이나레이디스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08년 시즌도 '신지' 신지에(19·하이마트) 독주체제는 흔들림이 없을 전망이다.

신지에는 16일 중국 사면의 오리엔트골프장(과72·6천460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2008년 시즌 개막전 차이나레이디스 스오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정상에 올랐다.

2위 청야니(8언더파 208타)를 5타차로 따

돌려 우승 상금 4천200만원을 받은 신지에는 대회 2연패와 함께 2009년 미국 진출에 앞서 목표로 삼았던 한국여자프로골프 상금왕 3연패에 든든한 반석을 쌓았다.

시즌이 바뀔 탓에 2007년 시즌에 9승을 거둔 신지에는 '단일 시즌 두자릿수 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 수립은 무산됐지만 '당해 연도 10승'의 진기록을 세웠다.

안선주(20·하이마트)가 5언더파 211타로 3위를 차지하고 지은희(21·켈러웨이)가 4

언더파 212타로 4위에 올라 2008년 시즌 역시 신지에의 독주에 안선주, 지은희의 힘겨운 추격전으로 전개됐던 2007년 시즌 양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룩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	회원권
광주	3,500	900 ~ 5,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한림 7,400

상담 문의 (062)351-0095

함평다이내스티 '출인원 이벤트' 첫 주인공 정영삼씨

호남 최초 양산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가 지난 7일부터 시행한 '연말 고객감사 출인원 이벤트' 행사에서 첫 번째 출인원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정영삼씨는 16일 임페리얼 코스 4번 홀(파3·160m)에서 켈러웨이 6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그린에 원바운드 된 뒤 홀컵으로 빨려들어가 출인원의 행운을 안았다.

정씨는 출인원 증명서 및 최신행 LG 12kg용량의 트롬 세탁기를 부상으로 받았으며 임페리얼 4번홀은 대한화재(주)가 제공한 출인원 이벤트홀로 정씨는

200만원의 출인원 상금까지 함께 받았다.

이날 동반자는 함평다이내스티CC VIP회원들이 황명성, 김오범, 박종호 씨였다.

한편 함평다이내스티CC는 연말고객 감사 출인원 이벤트 행사를 계속 벌여 두번째 출인원 고객에는 LG디오스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세번째에는 LG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네번째에는 LG PDP 42인치 벽걸이형 TV를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강석 빙속 월드컵 '금'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간판 이강석(22·의정부시청)이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500m에서 자신의 시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강석은 16일(한국시간) 독일 예르푸르트에서 열린 대회 첫 날 남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1차 레이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기록(35초20)에 0.02초 뒤지는 35초22의 좋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드미트리 로보코프(러시아·35초24)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말형' 이규혁(29·서울시청)은 35초31로 동메달을 따냈고, 이기호(광문고·35초76)와 문준(성남시청·35초93)은 각각 11위와 16위에 올랐다.